

김창영 (B.1957)

학력

1957	대구출생, 1982년 이후 요코하마 거주
1984	소케이 미술학교 졸업
1986	동경예술전문학교 졸업
1991-99	동경예술전문학교 강사

개인전

2023	모래극, BHAK, 서울
2020	김창영초대전, 제주도립김창렬미술관, 제주도
2018	김창영전, SH art Project, 도쿄, 일본
2017	일본의 한국 작가 한국문화원, 도쿄, 일본
2016	박영덕화랑, 서울
2013	FEI 아트뮤지엄, 요코하마, 일본
2012	박영덕화랑, 서울
2011	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2010	리 갤러리, 베를린, 독일 박영덕화랑, 서울
2008	동경화랑, 도쿄, 일본 나가이화랑, 도쿄, 일본 박영덕화랑, 서울
2007	갤러리오라오라, 홍콩
2006	박영덕화랑, 서울
2005	예술공간 아오키, 시즈오카, 일본
2003	박영덕화랑, 서울
2002	예술공간 아오키, 시즈오카, 일본 갤러리 Move
2001	코리아 아트 갤러리, 부산 박영덕화랑, 서울
1999	니시무라 화랑, 도쿄, 일본 박영덕화랑, 서울
1998	갤러리 Move
1997	예술공간 아오키, 시즈오카, 일본 TSA 갤러리, 도쿄, 일본 박영덕화랑, 서울
1996	ABC 갤러리, 오사카, 일본

- 1995 오카자키타마코 화랑, 도쿄, 일본
오카자키타마코 화랑, 도쿄, 일본
박영덕화랑, 서울
- 1994 니마센드뮤지엄, 시마네, 일본
- 1993 오카자키타마코 화랑, 도쿄, 일본
예술공간아오키, 시즈오카, 일본
갤러리 Move
- 1992 갤러리 현대, 서울
- 1991 갤러리 쯔쿠바, 사이타마, 일본
템포라리스페이스, 삿포르, 일본
오카자키타마코화랑, 도쿄, 일본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 1990 INAX갤러리, 도쿄, 일본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 1989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 1988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 1987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 1986 갤러리 THAT, 대구
후갤러리, 서울
- 1984 고마이 화랑, 도쿄, 일본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0 일루전, 원초적 상상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19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아트광주, 박영덕화랑,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Art Central HK 2019, 박영덕화랑, 홍콩
아시아호텔아트페어, 박영덕화랑, 부산
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LA Art Show, 박영덕화랑, L.A, 미국
- 2018 Art Miami 2018, 박영덕화랑, 마이애미, 미국
대구아트페어, 박영덕화랑, 엑스코, 대구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부산국제화랑아트, 박영덕화랑, 벅스코, 부산
Art central HK 2018, 박영덕화랑, 홍콩
LA Art Show, 박영덕화랑, L.A, 미국
요요노메 현대 회화전, 니혼바시미쯔코시 갤러리, 도쿄, 일본전국순회전
- 2016 회화와 조각의 사이전, 사이타마현근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어포더블아트페어서울, DDP, 서울

- 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코엑스, 서울
아트부산, 박영덕화랑, 벡스코, 부산
- 2015 G-서울아트페어, 박영덕화랑, DDP, 서울
- 2014 Scope 마이애미비치, 박영덕화랑, 비치파빌리온, 마이애미, 미국
- 2013 아트스테이지싱가폴, 박영덕화랑, 마리나베이센즈엑스포, 싱가포르
아트쇼부산, 벡스코, 부산
- Elements of nature전, 오페라갤러리, 싱가포르
- 2012 마이크로싸롱전, 동경화랑, 도쿄, 일본
스폰아트페어, 박영덕화랑, 그랜드하얏트, 홍콩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아트쇼부산, 벡스코, 부산
-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2011 칼스루헤아트페어, 리 갤러리, 베를린, 독일
-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 2010 KCAF(한국현대미술제), 박영덕화랑, 예술의전당, 서울

- 아트시카고, 박영덕화랑, Merchandise Mart, 시카고, 미국
아시아호텔아트페어, 박영덕화랑, 그랜드하얏트, 홍콩
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 벅스코, 부산
젊은 모색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크로싸롱전, 동경화랑, 도쿄, 일본
- 2009 아트타이페이, 박영덕화랑, 타이페이월드트레이드센터, 대만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서울오픈아트페어,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또 하나의 일상,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경기도
- 2008 대구아트페어, 박영덕화랑, 엑스코, 대구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KIAF,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서울오픈아트페어,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 2007 아르코2007, 박영덕화랑, IFEMA, 마드리드, 스페인
On Opening of Illusion/Disillusion,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차세대의 아트전, 텐마야갤러리, 오카야마, 일본
- 2006 The Truth of Six Rooms, 사비나현대미술관, 서울
아르테피에라볼로냐2006, 박영덕화랑, 볼로냐, 이탈리아
- 2005 NICA 아트페스티벌, 도쿄국제포럼, 도쿄, 일본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 2004 존재와 기억전, 박영덕화랑, 서울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 2003 진경-그 새로운 제안:한국미술200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2002 샌프란시스코아트엑스포지션, 박영덕화랑, Fort Mason 센터 샌프란시스코, 미국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시카고아트페어, 박영덕화랑, 네이비피어홀, 시카고, 미국
- 2001 Illusion and Reality, 호암아트갤러리, 서울
KCAF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아트싱가폴, 예술공간아오귀,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서울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 예술의전당, 서울
제5회 샹자인터내셔널 아트비엔날레, 샹자 엑스포센터, 샹자, 아랍에미리트

- 2000 팜프링스인터내셔널아트페어, 박영덕화랑, 팜프링스컨벤션센터, 캘리포니아, 미국
한국의 미술가들, 갤러리 코발렌코, 겔드롭, 네덜란드
- 1999 팜프링스인터내셔널아트페어, 박영덕화랑, 팜프링스컨벤션센터, 캘리포니아, 미국
리딩네이처, 사이타마 근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FIAC'99, 박영덕화랑, 파빌리온 두 파크포르테드베르사이유, 파리, 프랑스
아트 브뤼셀'99, 박영덕화랑, 브뤼셀 엑시비션 센터, 브뤼셀, 벨기에
제4회 샤자인터내셔널 아트비엔날레, 대상 수상, 샤자, 아랍에미리트
미나기루, 갤러리 Move, 요코하마, 일본
아트 팜비치'99, 박영덕화랑,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플로리다, 미국
서울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서울
현대한국의 위치, 바이스갤러리, 쾰른, 독일
중앙미술대전 대상작가초대전, 호암갤러리, 서울
아트바젤, 갤러리현대, 메세바젤홀, 바젤, 스위스
- 1998 아트 인터내셔널 뉴욕'98, 박영덕화랑, 자콥자비스컨벤션센터, 뉴욕, 미국
Crossing Boundaries, 갤러리V, 콜럼버스, 오하이오, 미국
현대한국의 위치, 도로테아 반 데르퀼렌 갤러리, 마인츠, 독일
하나로부터의 빛, 오카지키타미코화랑, 도쿄, 일본
서울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 예술의전당, 서울
아트마이애미, 박영덕화랑, 마이애미비치 컨벤션센터, 플로리다, 미국
아트쾰른, 박영덕화랑, 라인사이드홀, 쾰른, 독일
- 1997 사카에구 10주년 기념, 도시 속의 예술, 사카에구, 요코하마, 일본
일본 현대 리얼리즘회화, 니혼바시미즈코시 갤러리, 도쿄, 일본
L.A. 인터내셔널 비엔날레, 박영덕화랑, 렘바갤러리, 캘리포니아, 미국
신소장작품전, 사이타마근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 1996 와타나베토요시게. 김창영전, 갤러리 Move, 지가사키, 일본
아쿠아아시아전, 린쿠우게이트타워, 오오사카, 일본
Triton 컨템퍼러리아트페어, Triton호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미국
요요노메 현대 회화전, 니혼바시미즈코시 갤러리, 도쿄, 일본전국순회전
- 1995 -ing, 마치다 시립 국제 판화 미술관, 일본
이츠카하치로. 김창영, 갤러리 375, 도쿄, 일본
이낙스 갤러리 자선전, 이낙스 갤러리, 도쿄, 일본
현대미술 소장품에서 보는 오늘의 미술, 카와쿠치 현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 1994 카와쿠치 현대미술관 소장작품, 카와쿠치 현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요코하마의 작가들, 요코하마 시민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 현대미술, 상하이 미술관, 중국
카네야마 기념미술전, 효오고 근대미술관, 고오베, 일본
- 1993 화랑미술제, 진화랑, 예술의 전당, 서울
의식과 체험의 다양성, 박영덕 화랑, 서울

- 1992 윤희창. 김창영전, 갤러리 고야나기, 도쿄, 일본
현대 리얼리즘회화, 니혼바시미츠코시 갤러리, 도쿄, 일본
아시아 5인전, 카와카미 화랑, 도쿄, 일본
-ing교착점, 미카레디 갤러리, 도쿄, 일본
- 1991 야스이상수상전, 세존미술관, 도쿄, 일본
포지션 인 아트, 오 미술관, 도쿄, 일본
에코노로지, 고노하 화랑, 도쿄, 일본
흙과 모래의 일루전, 갤러리 am, 도쿄, 일본
형상, 템포러리 스페이스, 삿포로, 일본
Crossing Wave, 갤러리 Move, 지가사키, 일본
- 1990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일본 우시마도 국제예술제, 우시마도, 오카야마, 일본
이낙스 갤러리 100회 기념전, 이낙스 갤러리, 도쿄, 일본
- 1989 Movement,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질주하는 공간, 타니시마 갤러리, 도쿄, 일본
일본 현대미술, 도쿄도 미술관, 도쿄, 일본
The Trick, 마츠야긴자 갤러리, 도쿄, 일본
컨템포러리 아트 페스티벌, 사이타마 근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 1988 일본국제미술, 도쿄도 미술관, 도쿄, 일본
아카시로,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현대미술가 120인, 사이타마 근대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ing Theater, 스페이스 1-11-1, 도쿄, 일본
- 1987 카나카와 아트 애뉴얼, 켄민 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일본 현대미술, 도쿄도 미술관, 도쿄, 일본
BOX, 사이린 화랑, 요코하마, 일본
-ing Theater, 요요기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사이카와국제아트페스티벌, 신슈신마치 미술관, 나가노, 일본
- 1986 요코하마 - 서울 현대미술, 카나카와켄민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우에다히로미. 김창영, 갤러리 Move, 지가사키, 일본
- 1985 시차, 갤러리 K, 도쿄, 일본
다중다양, 갤러리 News, 도쿄, 일본
- 1984 카나가와켄 미술전, 켄민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 1982 28인의 이미지, 수화랑, 대구
- 1981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부산
- 1980 일본-프랑스 현대미술, 도쿄미술관, 도쿄, 일본/그랑팔레 미술관, 파리, 프랑스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9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수상**
- 1999 샤자인터내셔널아트비엔날레, 대상수상
- 1987 일본현대미술전, 미술문화진흥협회상 수상

- 1980 일본-프랑스 현대미술전, 3석상, 프랑스평론가상수상
 중앙미술대전, 대상수상
- 1979 중앙미술대전, 장려상수상

주요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일본
호암미술관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 일본
포스코 미술관
샤자국립미술관, 아랍에미레이트
사이토기념가와쿠찌 현대미술관, 일본
한솔문화재단
대구시립미술관
메나드 미술관, 일본
오키나와 차탄문화센터, 일본
요코하마 비즈니스파크, 일본
토토리현 청사, 일본
일본생명 우라야스 연수원, 일본
파이넨스빌딩
칸나미쵸청사 로비벽화, 일본
오릭스연수원 블루웨이브벽화, 일본
도쿄우시고메카구라자카스 지하철역벽화, 일본

KIM Chang Young (B.1957)

1957	Born in Daegu
1982	Lives in Yokohama
1984	Graduated from Sokei school of art
1986	Graduated from Tokyo school of art
1991-99	Lecturer of Tokyo school of art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3	Sand Play, BHAK, Seoul
2020	KIM Chang-young, KIM Tschang-yeul Art Museum Jeju, Jeju
2018	Kim, Chang-young, SH art Project, Tokyo, Japan
2017	KOREAN ARTISTS IN JAPAN, Korean Cultural Center, Tokyo, Japan
2016	Galerie Bhak, Seoul
2013	FEI Art Museum, Yokohama, Japan
2012	Galerie Bhak, Seoul
2011	Korean cultural center, Berli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2019	illusion:primitive imagination, Suseong Artpia, Daegu	
	Art Gwang-ju, Galerie Bhak, Seoul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erie Bhak, COEX, Seoul	
	Art Central HK 2019, Galerie Bhak, Hong Kong	
	ASIA HOTEL ART FAIR BUSAN, Galerie Bhak	
	KOREA GALLERIES ART FAIR, Galerie Bhak	
	LA Art Show, Galerie Bhak, L.A, United States of America	
	NICAF Art Festival, SH art project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2018	Art Miami 2018, Galerie Bhak, Miami, United States of America
		Daegu Art Fair, Galerie Bhak, EXCO, Daegu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erie Bhak, COEX, Seoul		
Busan Annual Market of Art, Galerie Bhak, BEXCO, Busan		
Art Central HK 2018, Galerie Bhak, Hong Kong		
LA Art Show, Galerie Bhak, L.A, United States of America		
NICAF Art Festival, SH art project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2016	Between Painting and Sculpture, Saitama Prefectural Museum of Art, Saitama, Japan	
	Affordable Art Fair Seoul, DDP, Seoul	
	KOREA GALLERIES ART FAIR, Galerie Bhak, COEX, Seoul	
	Art Busan, Galerie Bhak, BEXCO, Busan	

Award

1999	Sharjah Biennial Grand Prize
------	------------------------------

- 1987
- 1980 Joong-Ang Grand Art Exhibition, Grand Prize
- 1979 Joong-Ang Grand Art Exhibition, participation prize

Selected Collections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POSKO Museum
- HO-AM Art gallery
- Daegu Art Museum
- Hansol Foundation of Culture
- Seoul Finance Center
- 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pan
- Menard Art Museum, Japan
- Saitama Prefectural Museum of Art, Japan
- Saito Memorial Kawaguchi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pan
- Sharjah National Museum, UAE
- Yokohama Business Park, Japan
- Totori Prefectural Hall, Japan
- Kannami Prefectural Hall, Japan
- Okinawa Chatan Culture Center, Japan
- Tokyo Ushigome Kagurazaka station Mural painting, Japan
- ORIX Training Center Blue Wave Mural painting, Japan
- Nihon Seimei Training Center, Japan

《모래극》 작가 김창영(1957-)은 우리가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모래사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다. 그 장면은 일반적인 파노라마 형태의 풍광이 아니다.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린 자국이라든지, 바람이 불며 모래 위를 지나간 흔적과 같다. 모래사장의 장면을 재구성한 김창영의 그림은 뛰어난 실물감을 보이며 마치 눈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캔버스 표면에는 물감이 아닌 모래가루가 표면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창영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은 후 접착제로 모래를 붙이고, 다시 캔버스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모래를 털어내길 반복하여 캔버스 표면을 평평한 모래 면으로 만든다. 그렇게 밀 작업이 끝난 뒤 붓과 물감으로 특정 자국이나 흔적을 매우 정밀하게 표현한다.

정밀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김창영의 그림처럼, 보이는 대상을 실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미술 기법을 미술에서는 일루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루전은 김창영의 작품에서 가장 큰 형식적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루전(비실재)과 리얼리티(실재)의 개념은 김창영의 회화에서 주요한 화두로 꾸준히 논의되었다.

먼저, 미술사학자 이일은 작품에 물감과 붓으로 묘사한 흔적을 일루전으로, 작품 화면을 구성하는 실제 모래는 리얼리티로 구분하였다. 이일은 이 두 요소를 일루전과 리얼리티로 구분하며 문자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듯하지만, 시각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동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붓으로 묘사한 흔적은 일루전이지만 그림에서는 일루전이 현실의 모래처럼 실제화되고, 반대로 모래는 리얼리티이지만 시각 이미지 안에서는 허상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일은 김창영의 회화에서 일루전과 리얼리티가 서로를 역설하는 수사학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다른 미술사학자 윤난지도 유사한 관점에서 김창영의 회화를 해석하였다. 그는 미술의 관행에 있어, 리얼리티를 캔버스에 옮기는 것이 일루전이라고 볼 때, 김창영의 그림에서 캔버스를 덮고 있는 모래와 모래 위에 묘사된 모티프는 모두 하나의 일루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김창영의 그림에서 일루전과 리얼리티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하나의 일루전이 또 하나의 리얼리티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봤을 때, 김창영의 회화에서 일루전과 리얼리티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화를 포함하여 연극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연극을 볼 때 극 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사실을 재구성한 허구임을 알지만 극을 보는 와중에는 허구를 현실로 인지한다. 그리고 극 중에서 허구와 현실이 마주치며 창출되는 극적 순간을 통해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미적 체험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전시 타이틀은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극적(劇的, dramatic) 순간의 의미를 담아 (작품 제목에서 Sand Play는 모래 놀이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모래극으로 명명된 것이다. 김창영의 그림에는 여러 번의 극적인 순간이 발견된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모래 사장의 풍경을 그림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모래사장과 일체감을 자아내는 모래 그림을 보는 순간이다. 마지막은, 김창영의 그림을 관찰할 때 우리의 감각이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도되는 순간이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몸으로 더욱 와닿는 김창영의 그림은 극적인 예술이란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는다. 차가운 전시장 벽에 걸린 김창영의 그림은 실제로 어떤 질감과 온기를 뿜어내고 있는 듯하다. 어떤 모래는 부드럽고 어떤 것은 거칠다. 또 어떤 모래는 따뜻하고 어떤 것은 차가운 기운이 맴돈다.

그렇다면 김창영은 왜 모래라는 물질을 캔버스 위로 가져온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김창영의 팩스가 도착했는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로서, 리얼리티와 일루전 사이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내 작품은 현실의 연장으로, 거기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어프로치 일 수도 있다 ... 모래를 움켜질 때 나타난 손자국을 본다. 만질 수는 없다. 모래 요철의 그림자이니까. 현실 속에 만질 수 없는 시각만의 세계가 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림자, 무지개, 한편의 영화. 나는 오랫동안 모래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김창영이 현실에서 만질 수 없는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래는 특히 손으로 잡히나, 잡히는 순간 손에서 빠져나가고, 또 손으로 만지더라도 눈으로 본 모래의 형태는 이내 사라진다. 김창영은 해변을 걸으며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이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김창영은 만지지 못하는 모래라는 물질을

그림으로 대신 남기려는 욕구와 애착을 보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김창영이 오랫동안 모래 그림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다.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경험을 특별하게 기록한 김창영의 그림. 그의 그림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모사(copy imitation)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내용을 빌리자면, 연극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본질은 모방(men in action, mimesis)인데, 여기서 모방은 단순한 복사를 의미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창조 행위라고 하였다.

모래의 비가시적인 영역을 감각하도록 이끄는 김창영의 회화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모래 그림은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현실을 그린 것이면서도 무한한 비가시적인 영역을 촉각으로 느끼게 한다. 이처럼, 김창영의 회화는 시촉각의 응집체로써 현실과 친숙하면서도 현실을 능가해 있는 낯선 감각을 깨우는 기묘한 예술인 것이다.

글 | 임소희 (BHAK 큐레이터)